

##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대학생들의 정서 인식: 모의 실험 상황에서 긍정 기분과 부정 기분 유도를 통하여\*

정 의 석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전임상담사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개인들이 정서조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서(긍·부정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비임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정서인식명확성의 하위요인인 정서주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정서 명료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참여자 중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긍·부정 기분을 유도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은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긍정 기분이 늘어났지만 부정 기분이 감소하지 않는 반면,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부정 기분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긍정 기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긍정 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에 강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임상적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정서 인식, 모의 실험, 기분 유도

\* 본 연구는 정의석(2019)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계선 성격 특성 수준에 따른 정서 인식의 차이 검증: 모의 실험 상황에서의 긍·부정 기분 유도를 통해’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본 연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차세대 연구지원사업(2018)에서 지원을 받아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031-219-2787, E-mail: eunkim@ajou.ac.kr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는 정서와 정체성의 불안정성, 충동성, 대인관계 및 자해행동과 같은 자기파괴적인 행동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정신병리이다(Linehan, 1993). 경계선 성격장애는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증상을 동반하는 성격장애로, 유병률을 살펴보면, 일반 인구의 1.6%, 정신과 외래환자의 10~12%, 정신과 입원환자의 20~22% 정도이다(Ellison, Rosenstein, Morgan, & Zimmerman, 2018). 경계선 성격장애는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섭식 장애, 물질 관련 장애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고(임현주, 2010),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Skodol et al., 2002),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임상 집단 뿐만 아니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예방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문희, 이수림, 2020). 또한 성격장애가 정상적인 성격 특성의 반대가 아닌 연속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근거(양은주, 류인균, 2000)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심해져 경계선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Trull, Usseda, Conforti, & Doan, 1997)도 보고되면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보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허연주, 이민규, 2015; Fonseca-Pedrero et al., 2011). 더불어, 비록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이 장애의 특성을 유의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직업적 혹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비임상군 연구가 증가하였다(Bagge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장애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일반 성인들, 특히 대

학생들의 정서 인식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다양하고 복잡한 증상들은 총 4가지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Leib, Zanarini, Schmahl, Linehan & Bohus, 2004). 먼저, 정서적 영역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강렬하고 불쾌한 정서(예. 분노), 공허감, 외로움 등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잦은 기분 변화를 경험한다. 둘째, 인지적 영역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는 정신증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망상 또는 환각, 심한 경우 해리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 다른 증상은 충동성 영역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사람들은 여러 정서적 자극으로 유발된 경험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과소비나 과식, 충동구매 같은 충동적인 행동부터 자해나 자살 시도와 같은 자기위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영역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관계에서 과도한 유기불안과 감정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 주 양육자와의 불안정 애착, 아동기의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경험 등이 보고되었다(Britne, Kolb, Ebert, Roser & Edel, 2015; Hooley, 2007). 이 중 연구 초기에는 아동기 성적 학대 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논의되었지만(Bailey & Shriver, 1999), 최근에는 성적 학대만으로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정서적 학대 경험도 주목을 받고 있다(이아람, 김남재, 2012; Kuo, Houry, Metcalfe, Fitzpatrick &

Goodwill, 2015).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게 무관심하고 거부적이며 경멸 또는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연구들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중 정서적 학대만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rnovalova, Gratz, Delany-Brumsey, Paulson, & Lejuez, 2006; Briere & Elliott, 2003). 또한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가장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Watson, Chilton, Fairchild, & Whewell, 2006), 성적 학대를 통제 한 후에도 정서적 학대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이 보고되었다(Burns, Jackson & Harding, 2010).

이와 같이 정서적 학대가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정서적 학대가 어떤 심리적 기제를 매개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정서조절 어려움이 정서적 학대와 경계선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uo et al., 2015; Dijke, Ford, Son, Frank & Hart, 2013). 실제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정서조절 어려움(혹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nchan(1993)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다양한 증상들이 정서조절 어려움에 의해 초래된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조절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Gross(1998)는 정서조절을 어떤 정서를, 언제,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가에 대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적응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정서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강화되어, 회피 행동, 과잉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

험할 수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를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먼저 정서강도를 꼽을 수 있다. 정서강도는 전형적으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로, 정서적인 사건에 대한 각성 수준과 반응성을 의미한다. 누구나 정서를 경험하지만 정서 자극에 대한 각성 수준과 반응성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rsen & Diener, 1987). 정서강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강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성, 활동성, 수용성, 외향성 및 정서적 안정성과 같은 적응적인 특성을 보이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정서강도가 심리적 부적응(예. 반추, 우울,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특히,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정서적 혼란감과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이로 인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회피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서진, 김은하, 2016; 하현주, 권석만, 2010; Bornovalova, Matusiewicz & Rojas, 2011; Brumariu & Kerns, 2013; Cooper, Agocha & Sheldon, 2000).

정서강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혼재된 결과들을 보고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먼저,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서강도를 긍정 정서강도(긍정정서를 강렬하게 느끼는 정도)와 와 부정 정서강도(부정정서를 강렬하게 느끼는 정도)로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긍정 정서강도와 부정 정서강도는 서로 구분되는 이질적인 차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령, 이지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 정서 강도는 우울, 불안, 강박증, 신체화,

적대감, 대인 예민성 등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면 긍정 정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지영과 김은하(2018)의 연구에서도 부정 정서강도가 높은 '불쾌한 집단'과 '강렬한 집단'이 부정 정서강도가 낮은 '유쾌한 집단'과 '담담한 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긍정 정서강도가 높은 '유쾌한 집단'과 '강렬한 집단'이 '불쾌한 집단'에 비해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인의 정서 인식 과정을 살펴볼 때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강도에 대한 비밀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두 번째 이유로는 기존 연구들이 정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Gohm & Clore, 2003). 정서강도는 다른 정서변인들의 존재 여부 혹은 수준 정도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특히, 정서강도는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의식적으로 지각하고(정서주의) 자신의 정서 상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정서 명료성)으로, 정서조절과 정서표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 전제 조건으로 기능한다(최문정, 이수림, 2019).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개인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정서를 더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hm & Clore, 2003). 이와 반대로, 정서인식명확성이 떨어지면, 자신의 정서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정서를 조절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

를 느끼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서조절 보다는 당장의 정서조절을 위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서강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정서인식명확성이 떨어지면, 반추, 파국, 회피 등과 같은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 부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에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긍정적 초점변경, 수용과 같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서진, 김은하, 2016; Kerns & Berenbaum, 2010).

이와 같이 정서강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상호작용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이 변인들을 조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에 따른 개인차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김수안과 민경환(2006)은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열정 집단, 압도 집단, 침착 집단, 냉담 집단의 네 집단을 발견하였다. 이 중, 정서강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모두 높은 열정 집단이 정서강도는 높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압도 집단에 비해 능동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이경희와 김봉환(2010)도 동일한 요인의 조합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정서강도, 정서주의는 높지만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혼란 집단이 정서강도, 정서주의 및 정서인식명확성이 모두 높은 솔직 집단에 비해 충동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정서강도 자체가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않지만,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Gohm과 Clore(2003)은 정서를 강렬하게 경험할 때, 그

경험을 세부적인 정서로 인식하지 못하면 정서를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정서적 회피는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정서강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중요한 정서 변인이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 문헌에서도 두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개인의 정서조절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 정서강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먼저, Linehan(1993)의 생물사회학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정서 강도, 즉, 정서 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 높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경계선 성격장애 임상 환자들이 다른 C군 성격장애 혹은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서강도를 보이고(Henry et al., 2001), 사회적 상호작용 이후에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은 부정 정서를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Rosenthal, Cheavens, Lejuez, & Lynch, 2005; Yen, Zlotnick, & Costello, 2002), 가령,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긍정적 정서 자극보다 부정적 정서 자극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위협적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과 비임상 집단을 비교했을 때,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가 비임상 집단의 부정 정서 강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의 긍정 정서 강도는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Levine, Marziali, & Hood, 1997). 즉,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있는 개인들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정서인식명확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매우 혼재되어 있다.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부정 정서를 명명하는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land, Williams, Scherer & Manning, 2004). 또한 Domes 등(2008)과 Ferreira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은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표정을 부정적인 표정(예. 분노 표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Mitchell, Dickens와 Picchioni(2014)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은 중립적인 얼굴 표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하게, 김지선, 현명호(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황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서를 인식하고 그 강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긍정 혹은 중립 정서를 부정 정서로 명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른 연구들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부정 정서에 대한 편향 뿐만 아니라 놀람이나 중립 표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는데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Dyck et al., 2009). 이 밖에도, Robin 등(2021)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통제 집단에 비해 분노 표정과 더불어 기쁨 표정에 대해서도 지연된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들이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인식하고 명명하는데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개인이 정서를 인식하고 명명하는데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Lynch

et al., 2006). 가령, Lynch 등(2006)은 얼굴표정 사진을 사용하여 정서 인식 연구를 실시한 결과, 경계선 성격 집단과 통제 집단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경계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민감하고 빠르게 정서를 명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계선 집단은 놀람 표정과 같은 중립적인 정서와 긍정 정서를 인식하고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ulze, Domes, Koppen, & Herpertz, 2013). 이 외에도, 경계선 성격장애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능력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Minzenberg, Poole, Vinogradov, 2006; Dyck et al., 2009). 또한 Winter(2016)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 과제(예. Stroop test)에서 중립적인 내용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할 때 반응 시간이 길어지거나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줬을 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확인하진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직까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개인이 정서를 인식하고 명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정서의 유형(예.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명백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집단의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존장애를 겪고 있어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특성 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Ooi, Franvoca,

Szekely & Michael, 2018; Trull, 1995).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자기보고식 척도, 얼굴 표정 인식 과제, 사이버불 게임, 사회적 가상 시나리오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Koenigsberg et al., 2001). 구체적으로 이들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먼저, 자기보고식 척도의 경우, 문항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이나 경험의 영향에서 비롯된 응답 차이(최부열, 정경미, 2011), 회고적 방식으로 인한 응답 오류(김수진, 박기환, 2017),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긍정 응답 편향(신성만, 송용수, 김정진, 오준성, 2018) 등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지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얼굴 표정 인식 과제는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는데, 가령, 평이한 난이도의 과제로 경계선 성격장애자의 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하면 과제의 천장효과로 인해 정서 인식 결함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Minzenberg et al., 2006). 또한 사용된 표정 자극이 도식적 얼굴 그림에서부터 실제 인물의 사진, 개인적으로 제작한 사진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극의 제시 시간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 외에도,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정서 조절 문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박선매, 2017), 자기보고식 척도와 얼굴 표정 인식 과제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불 게임과 사회적 가상 시나리오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 바 있으나, 두 방법도 직접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경계선 성격장

에 성향자의 정서 인식 능력을 측정하지 못한  
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사이버 불 게임을 활  
용한 연구의 경우(Williams 등, 2002), 대인관계  
적 상호작용 상황을 야기하긴 하지만 그 상황  
이 가상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소  
속된 상황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서  
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다  
른 연구 참여자들과 실제로 만나지 않고 게임  
속의 캐릭터와 만나 상호작용하는 것은 대면  
상호작용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의 정서 인식 어려움  
은 측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사회적 가상  
시나리오를 사용한 연구는 참여자로 하여금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느  
껴지는 감정을 평가하게 하기 때문에 참여자  
들이 직접 느꼈던 감정이기 보다는 시나리오  
에 대한 감정을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사이버 불 게임과 유사하게 실  
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를 유  
도할 수 있는 얼굴표정, 운율, 분위기 등의 자극  
을 제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 방법들의 한계점을 보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분 유도 절차  
(Mood Induction Procedure; MIP)를 활용하여, 실  
제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어떻게 정서를  
인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Westermann 등  
(1996)에 따르면, MIP는 상상 MIP, Velten(진술  
문을 읽도록 하는 방법) MIP, 영상 MIP, 음악  
MIP, 사회적 상호작용 MIP, 얼굴 표정 MIP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이미정, 안  
창일, 1997),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 조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상  
황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참여자의 기분을 유

도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MIP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사회적 가상 시나리오와 달리 실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특  
정 기분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  
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Velten MIP의 메  
타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효과크기  
의 정서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stermann 등, 1996). MIP는 긍정 정서와 부  
정 정서를 유도하는데 모두 사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가 긍정 정서  
와 부정 정서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특히, 긍정 정서를 부정 정서로 인식하는 편  
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Mitchell et al., 2014)를  
고려하여, 긍정 정서를 유도하는 상황과 부정  
정서를 유도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정서를 인식하는지 비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경계선 성격장애  
의 핵심 증상은 정서조절 어려움으로, 이러한  
문제는 높은 정서강도 뿐만 아니라 낮은 정서  
인식명확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경계선 성  
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정서 인  
식에 있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아,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과거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척도, 얼굴 표정 인식 과제, 사이  
버 불 게임, 사회적 가상 시나리오의 한계점  
을 고려할 때, 더 직접적으로 사회적 상호작  
용을 구현할 수 있는 모의 실험을 통해 경계  
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의 정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세  
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1에서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의 하위  
요인인 정서주의, 정서 명료성과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 참여한 대학생 중 경

개선 성격 장애 성향이 강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긍정 정서가 유도되는 조건과 부정 정서가 유도되는 조건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 정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연구 1: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정서인식명확성의 상관 관계

연구 1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정서인식명확성(정서주의, 정서 명료성)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경기도 소재 A대학의 학부생 389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설문 참여자들은 심리 관련 수업의 수강생으로, 수업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추후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해당 수업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고, 음료 기프티콘이 제공되었다.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56명(40.1%), 여성 233명(59.9%)이었고, 평균 연령은 22.22세( $SD=2.87$ )이었다. 학년은 1학년 102명(26.2%), 2학년 103명(26.5%), 3학년 96명(24.7%), 4학년 88명

(22.6%)으로 확인되었다.

### 측정 도구

#### 정서인식명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 이훈구(1997)가 번안·타당화한 특질 초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TMMS는 21문항,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주의(5문항)는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정서 명료성(11문항)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도, 정서 개선에 대한 기대(5문항)는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정도를 측정한다.

Swinkels와 Giuliano(1995)는 정서 인식 과정을 정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선 지각할 수 있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느끼는지에 대해선 혼란스러운 것과 관련된 정서 주의과정(Mood Monitoring)과 그러한 상태를 식별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정서 명명과정(Mood Labeling)으로 구분한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던 정서 인식과정에서의 부적응적 정서 조절에 대한 혼재된 결과가 정서인식의 과정을 정서 주의과정과 정서 명명과정으로 변별하여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TMMS의 정서 주의와 정서 명료성을 각각 정서 주의과정과 정서 명명과정으로 구분하였고 정서 주의 5문항과 정서 명료성 11문항만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Bland et al., 2004; Domes et al., 2008; Ferreira et al., 2018; Lynch et al., 2006; Schulze, Domes, Koppen, & Herpertz, 2013).



각 문항은 5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TMMS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총점 .94, 정서주의 .86, 정서 명료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총점 .82, 정서주의 .84, 정서 명료성 .84이었다.

###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orey(1991)가 개발한 성격평가 척도(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의 11개 임상척도 중 경계선 성격장애 특성을 측정하는 PAI-Borderline Features Scale(PAI-BOR)을 사용하였다. PAI-BOR는 원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한국어로 번안 후 문항-총점 간 상관이 유의하게 낮은 1문항을 제외시켜 23문항으로 재구성한 한국판 PAI-BOR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홍상환 등(199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자료분석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정서인식명확성(정서주의, 정서 명료성)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연구 1에서 살펴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정서인식명확성 총점, 정서 명료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정서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 2: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기분 유도 조건에 따른 정서인식 차이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1	2	3	4
1.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			
2. 정서인식명확성: 총점	-.29**	-		
3.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주의	.05	.65**	-	
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 명료성	-.28**	.84**	.31*	-
M	28.42	57.92	39.30	18.61
SD	10.42	7.21	6.24	3.62

주. \* $p < .05$ , \*\* $p < .01$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MIP를 활용하여,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긍정 정서가 유도되는 조건과 부정 정서가 유도되는 조건에서 각각 어떻게, 얼마만큼 그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방 법

### 연구참여자

연구 2에는 연구 1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 사전에 연구 2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고, PAI-BOR 점수 38.84( $M+1SD$ ) 이상에 해당하는 50명(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이 참여하였다. 이는 39점 이상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계 범위에 속한다는 선행 연구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삼았다(Moor, Distel, Trull, Boomsma, 2009). 이들은 두 조건(긍정 기분 유도 조건, 부정 기분 유도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무선할당 과정은 우선, 연구자가 실험실 일정에 따른 실험 시간표를 작성하고 참여자의 ID 순서대로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배정하였다. 이후, 무작위로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실험 순서에 배정하였다.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와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 할당된 참여자는 각각 25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긍정 기분 유도 조건 21.70세( $SD=2.01$ ), 부정 기분 유도 조건 22.96세( $SD=3.85$ )이었고, 성별은 긍정 기분 유도 조건 남성 6명(26.1%), 여성 17명(73.9%), 부정 기분 유도 조건 남성 5명(21.7%), 여성 18명(78.3%)이었다.

### 측정도구

#### 사전-사후 한국 정서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실험 전(사전)과 실험 후(사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해 홍창희(2004)가 개발 및 타당화한 한국 정서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 문항, 두 개의 하위요인(정적 정서 경험, 부적 정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총점 뿐만 아니라 사전과 사후간의 차이 값 ‘기분의 변화량’도 산출하였다.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긍정 정서경험 .88, 부정 정서경험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경험 .90, 부정 정서경험 .88이었다.

#### 감정 단어 목록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실험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얼마나 인식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박인조와 민경환(2005)이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수준을 토대로 제작한 한국어 감정단어목록을 수정한 감정단어목록을 사용하였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감정단어목록에 포함된 단어는 87개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6개의 단어(긍정 단어 18개, 부정 단어 18개)를 선정하여 감정단어목록을 구성하였다. 먼저, 상담 혹은 임상 전공 대학원생 18명에게 ‘해당 감정 단어가 대학생들이 얼마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 단어인가?’와 ‘해당 감정 단어는 쾌-불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평

가하게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13개 단어(예. 정겹다, 사랑스럽다, 그립다)를 제거하였다. 이후 상담심리전공 교수와의 논의를 통해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느낄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의미를 가진 15개의 감정 단어를 추가적으로 제거하였다. 가령, 가능성이 낮은 단어로 ‘설레다’, ‘반하다’와 같은 단어가 제거되었고, 중복되는 단어로는 ‘괴롭다-심란하다’, ‘주눅들다-미안하다’와 같은 단어가 제거되었다. 실험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로 하여금 감정단어목록을 보고 ‘실험 중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 단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측정된 변인을 ‘감정 단어 인식’이라고 명명하였다.

#### 모의실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실험 협조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특정 기분을 유도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MIP을 사용하여,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기분을,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부정적인

기분을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1명의 실험 협조자를 섭외한 후, 실험 협조자와 참여자가 함께 문제를 풀어 연구자에게 답변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해당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대화 가이드라인은 Barnes-Holmes 등(2006)이 개발하고 정현석 등(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Implicit Relationship Assessment Procedure(IRAP)의 자극 목록 중 긍정적 선행 사건(Positive antecedents)과 부정적 선행 사건(Negative antecedents)을 차용하여 개발되었고, 이후,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 상담심리 전공 대학원생 8명, 임상심리전공 대학원생 6명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완성되었다. 구체적인 대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IRAP는 참여자가 특정 자극(예. 긍정적 선행 사건, 부정적 선행 사건)에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 단서(예. 긍정적 감정 반응, 부정적 감정 반응)를 제시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컴퓨터 기반 도구로, 인지적 연합 뿐만 아니라 개념 간의 관계도 평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사

표 2. 정현석 등(2017)의 IRAP 연구 자극 목록과 본 연구 대화 가이드라인

	긍정 기분 유도 조건	부정 기분 유도 조건
1. 자극 목록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목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뭔가 하나 둘 해결되어 나가네요. 그죠?” “생각보다 토론하니까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합이 맞는게 하나도 없네요.” “어째 자꾸 산으로 가려고 하시네요.”
2. 자극 목록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목적	참여자의 행동(ex. 노력, 발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앞에서 잘해주시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는 하시는거는 좋은데, 저는 별로 안하고 싶은데요.”

표 2. 정현석 등(2017)의 IRAP 연구 자극 목록과 본 연구 대화 가이드라인 (계속)

	긍정 기분 유도 조건	부정 기분 유도 조건
3. 자극 목록	내가 성공하면	내가 실패하면
목적	성공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답도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풀까요?”
4. 자극 목록	목표가 있을 때	목표가 없을 때
목적	참여자나 실험 협조자가 목표를 공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저 이런거 한 번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xx씨도 좀 그런가봐요.”	“어차피 대충해도 되는데, 이런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게 이해 안되는 것 같아요.”
5. 자극 목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
목적	다른 피드백을 받음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거 되게 잘하시나보다.”	“아니, 좀 확실한걸로만 얘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틀린 것 같은데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네요.”
6. 자극 목록	무언가 시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목적	참여에 대한 격려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이거 혹시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까처럼 푸시면 될 것 같은데.” “같이 고민 해봐요”	“어차피 저 실험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 할게요.”
7. 자극 목록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면
목적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대를 하도록 함	
예시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혼자 해요? 거들기라도 해주세요.”
8. 자극 목록	일을 끝마칠 때	일을 미룰 때
목적	참가자에게 실험의 진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도록 함	
예시	“혼자 했으면 어려웠을 거 같은데, 같이 하니 괜찮네요.”	“어차피 시간 부족한데, 그냥 그거 하나나 제대로 풀어서 내요.”

용되어 온 Implicit Association Test(IAT)와 차별성이 있다(Hughes & Barends-Holmes, 2011).

다음으로, 완성된 대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험 협조자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협조

자는 성공적인 점화를 위해 긍정 유도 조건에서는 “우리 3분 정도씩 할당해서 같이 문제를 푸는 걸로 할까요?”와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반면에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어차피 실험하는 건데 그냥 시간되는 데까지만 풀죠.”와 같이 목적과 참여 의식을 떨어뜨리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연구절차

총 50명의 참여자들을 각각 25명씩 긍·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은 실험 당 2명(실험 협조자 1명, 참여자 1명)이 참여하였고, 소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실험의 절차는 표 3과 같다.

실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실험은 A대학의 심리학과 실험실에서 10일간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 협조자와 마주보는 좌석에 앉도록 지시하고, 연구자는 실험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자로 하여금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서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에게는 실험 협조자 역시 자신과 같은 실험 참여자로 소개하였고, 실험의 목적은 참여자와 실험 협조자가 동영상 함께 시청한 후 관련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고 안내하였다. 참여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한국 정서경험척도를 실시하여 실험 전에 참여자가 어떤 정서를 인식하였는지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부터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실험 시작부터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풀 이후 실험이 종료되었다고 말씀드릴 때까지 자신에게 느껴지는 감정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이어폰을 착용한 후, 물이 담긴 접시에서 초콜렛이 녹아 번지는 내용의 중립 자극 영상을 시청하였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실험 협조자에게 “앞으로 10분간 보여드린 동영상을 토대로 몇 가지 문제를 푸시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같이 의논을 통해 정답지를 작

표 3. 실험 절차 요약

순서	측정	소요 시간
1	실험 안내와 동의서 작성	2분
2	사전 정서 경험 측정(한국 정서경험척도)	2분
3	정서주의 지시 및 중립 자극 영상 시청	3분
4	기분 유도 조건에 따른 실험 협조자와의 상호작용	10분
5	실험 협조자 퇴장	1분
6	사후 정서 경험 측정(한국 정서경험척도) 감정 단어 인식 측정(감정단어목록)	6분
7	마무리(디브리핑, 질의 응답 및 확인서 서명)	5분
전체		약 30분

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작성하실 때는 정답을 내리게 된 과정까지 함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한 후 질문지를 제시하고 퇴장하였다. 실험 시간은 성공적으로 기분 점화를 해낸 선행 연구들의 실험 시간을 참고하였다(김은하, 2012; 이지혜, 박승호, 2017). 질문지는 참여자와 실험 협조자가 의논해야 할 4개의 문제로 구성되었다(1. 총 재생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가능한 초 단위까지 기록해주세요. 2. 영상에 등장한 접시에는 몇 마리의 새가 있었나요? 3. 영상에서 총 몇 가지 색의 초콜렛이 나타났나요? 4. 영상의 분위기는 총 몇 차례 바뀌었나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표 4와 같이, 실험 협조자는 해당 유도 조건에 맞는 표정, 태도, 행동, 발화를 고려하여 상호작용을 수행하였고, 정답을 내리게 된 과정을 작성한 참가자들의 기록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연구 대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검하였다.

10분이 지난 후에 실험 협조자는 다음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대기실로 퇴장하였고, 참여자는 한국 정서경험척도와 감정단어목록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본래 목적과 가설, 속임수를 사용한 이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구 자료 보관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후 이러한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한 확인서와 수집된 자료를 연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실험 참가 보상으로 현금 1만원을 지급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긍·부정 기분 유도 조건 간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기분 유도 조건에 적절하게 기분 점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 4. 기분유도조건에 따른 표정, 태도/행동, 발화에 대한 예시

	긍정 기분 유도 조건	부정 기분 유도 조건
표정	재미있다는 표정	관심없는 표정
	참여자에게 호의적인 표정	참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태도/행동	적극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태도	핸드폰을 자주 쳐다보며 얼버무리는 태도
	참여자의 말에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알아서 하라는 방관하는 태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함께 하자며 이끌어가는 방식을 취함	참여자가 답을 작성할 때 답이 틀린 것 같다며 비웃거나 한숨을 쉬
발화	가능한 온정적인 말투	가능한 짧게 말함
	말 끝을 흐리지 않고 존대어를 사용함 (예. “그렇게 하셨네요”)	말 끝을 흐리며 이따금 반말을 사용함 (예. “아니...”, “그건 아니지”)
주의사항	참여자가 실험에 대해 눈치 챌 만큼 지지적이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야 함	참여자가 실험에 대해 눈치 챌 만큼 적대적이거나 비난적이지는 않아야 함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분 유도 조건에 따른 감정 단어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분 유도 조건에서 기분 변화량에 따른 감정 단어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집단의 동질성 검증

긍정 기분 유도 조건 참여자들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 참여자들의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결측치가 있었던 4개의 자료를 제외한 총 46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각 조건에 따른 성별, 연령,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점수, 사전 한국 정서경험척도 점수(총점, 긍정 정서, 부정 정서)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작점검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각각 기분 유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사전 한국 정서경험척도 점수와 사후 한국 정서경험척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긍정 정서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에 부정 정서 점수는 사전-사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표 7처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부정 정서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긍정 정서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한 바와 같이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긍정 정서가 유도된 반면에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유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분 점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 기분 유도 조건에 따른 집단 동질성 검증

	긍정 기분 유도 조건		부정 기분 유도 조건		<i>t</i>	<i>p</i>
	<i>n</i>	%	<i>n</i>	%		
남성	6	26.1	5	21.7		
여성	17	73.9	18	78.3		
	<i>M</i>	<i>SD</i>	<i>M</i>	<i>SD</i>		
연령	21.70	2.01	22.96	3.86	-1.39	.171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43.83	5.88	42.87	5.52	.19	.572
사전정서경험: 총점	4.96	8.67	5.57	9.84	-.22	.825
사전정서경험: 긍정 정서	10.70	7.76	10.39	8.31	.13	.898
사전정서경험: 부정 정서	5.74	8.04	4.83	5.18	.46	.649

표 6. 긍정 기분 유도 조건 조작 점검

변인	사전		사후		사전-사후
	M	SD	M	SD	t
사후정서경험: 총점	4.96	8.67	12.26	10.67	-3.71***
사후정서경험: 긍정 정서	10.70	7.76	17.87	8.17	-4.15***
사후정서경험: 부정 정서	5.74	8.03	5.61	6.26	.09

주. \*\*\*  $p < .001$

표 7. 부정 기분 유도 조건 조작 점검

변인	사전		사후		사전-사후
	M	SD	M	SD	t
사후정서경험: 총점	5.57	9.84	8.52	11.44	5.33***
사후정서경험: 긍정 정서	10.39	8.31	5.13	6.02	4.18***
사후정서경험: 부정 정서	4.83	5.18	13.65	8.13	-4.71***

주. \*\*\*  $p < .001$

기분 유도 조건에 따른 감정 단어 인식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표 8과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긍정 기분 유도 조

건에서는 긍정 단어 인식과 부정 단어 인식에서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도 긍정 단어 인식과 부정 단어 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긍정 기분 유도 내 감정 단어 인식

변인		SS	df	MS	F	p
긍정 단어 인식	집단 간	58.49	13	4.50	1.74	.206
	집단 내	23.33	9	2.60		
	합계	81.83	22			
부정 단어 인식	집단 간	21.81	13	1.68	.86	.614
	집단 내	17.67	9	1.96		
	합계	39.48	22			



표 9. 부정 기분 유도 내 감정 단어 인식

변인		SS	df	MS	F	p
긍정 단어 인식	집단 간	31.41	13	2.42	.82	.638
	집단 내	26.50	9	2.94		
	합계	57.91	22			
부정 단어 인식	집단 간	134.12	13	10.32	.74	.696
	집단 내	124.75	9	13.86		
	합계	258.87	22			

기분 변화량에 따른 감정 단어 인식

마지막으로,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각각의 기분변화량에 따라 감정 단어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먼저,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긍정 기분 변화량 평균 7.17점을 기준으로 변화량이 클 때와 작을 때의 감정 단어 인식을 비교하였다(표 10). 이를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기분변화량이 평균보다 많은 참여자가 평균보다 적은 참여자에 비해 긍정 단어 인식과 부정 단어 인식 모두에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부정 기분 변화량 평균 8.20점을 기준으로 변화량이 클 때와 작을 때의 감정 단어 인식을 비교하였다(표 11). 이를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긍정 단어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부정 단어 인식에서는 유

표 10. 긍정 기분 변화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 감정 단어 인식의 차이

긍정기분변화량		M	SD	t	p
긍정 단어 인식	≥ 7.17	3.36	2.16	.65	.523
	< 7.17	2.83	1.75		
부정 단어 인식	≥ 7.17	1.00	.78	-1.41	.178
	< 7.17	1.75	1.66		

표 11. 부정 기분 변화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 감정 단어 인식의 차이

부정기분변화량		M	SD	t	p
긍정 단어 인식	≥ 8.20	1.25	1.82	.10	.923
	< 8.20	1.18	1.47		
부정 단어 인식	≥ 8.20	7.17	3.69	3.37	.004**
	< 8.20	3.27	1.49		

주. \*\*  $p < .01$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 기분변화량이 평균보다 많은 참여자가 평균보다 적은 참여자 보다 부정 단어를 많이 인식 하였지만, 긍정 단어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자신의 정서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는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정서인식명확성(정서주의, 정서 명료성)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정서인식명확성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김지선, 현명호, 2012; 임현주, 2010)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가령, Leible과 Snell(2004)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정서 명명에서 부정확한 반응이 많음을 확인하였고, Dijke, Wout, Ford와 Aleman(2016)은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가 중립 표정 자극에서 특정 정서를 명명하기 어려워 하며 부정확한 반응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정서인식명확성의 하위요인 중 정서 명료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에 정서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자신의 정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가

아니라,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명명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이들이 회피나 억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강한 정서주의 때문이기 보다는 낮은 정서 명료성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Gratz, Rosenthal, Tull, Lejuez, Gunderson, 2006).

이어서, 연구 2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 관련 어려움을 겪지만, 기존 연구들이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상호작용 MIP를 활용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연구 1에 참여한 389명 중 PAI-BOR 점수 38.84( $M+1SD$ ) 이상, 상위 33%에 해당하는 50명의 참여자들을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39점 이상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계범위에 속한다는 Moor 등(2009)의 연구와 비임상집단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홍상환과 김영환(1998)의 연구 결과의 그 맥을 같이 한다. 참여자들은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는데,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두 집단은 성별, 연령,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점수, 사전 한국 정서경험척도 점수에서 동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2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참여자들이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긍정 기분 유도 조건의 경우, 긍정 기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도한 바와 같이 긍정 기분이 적절하게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부정 기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 후에 긍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지만 부정 정서를 덜 느끼지는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상대적으로 부정 정서에 더 큰 주의 편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Domes 등(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은, 긍정이나 중성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보다는 화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긍정 기분 유도 조건의 참여자들은 실험이 종료된 후, 감정 단어 목록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 협조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실험실과 같은 낮은 장소에서 평가를 받는 상황(예. 문제를 푸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참여자들의 부정 기분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긍정 기분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경계선 성격의 특성인 부정정서 편향과 관련이 있는데, 가령, 경계선 성격 장애 성향자들의 개인 내 정서적 취약성 중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고 과도하게 느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Jacob et al., 2008) 실험 상황에서 유도된 부정 기분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긍정 기분 유도 조건의 결과와 결부시켜 보면,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를 상쇄하지 못하지만 부정 정서는 긍정 정서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정서에 대한 편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서무시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반복적으로 자신의 정서 경험을 인정 혹은 공감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Keng & Soh, 2018). 또 다른 이유는 부정적인 자기개념 때문이다. 특히, Gratz, Rosenthal, Tull, Lejuez와 Gunderson(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수치심을 자주 느끼고, 이로 인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어떤 감정단어를 인식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했을 때 긍정-부정 기분 유도 조건 모두에서 긍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유의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졌다는 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참여자들은 실험 후 자신이 느낀 감정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막연하게 인식은 했지만, 구체적인 감정 단어(예. 불안, 두려움)로 명명화하는데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에게 정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선행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경계선 성격을 가진 개인이 정서를 인식하고 명명하는데 있어 통제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도 있었지만(Lynch et al., 2006), 반대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보고되었다(Wingenfeld et al., 2009). 또 다른 가능성은 실험을 통해 점화된

정서 강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의 정서가 해당 조건에 따라 사전-사후에 바뀌었지만 정서의 변화량이 개인마다 달라 감정단어인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험을 통한 기분 변화량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분 유도 조건에서 기분 변화량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을 구분하여 감정단어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부정 기분 유도조건에서는 부정 단어를 더 많이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긍정 기분 변화량이 많아도 긍정 단어를 더 많이 인식하지는 않지만 부정 기분 변화량이 많으면 부정 단어를 더 많이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더 편향되어 있고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명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어떤 정서를 느끼고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 얼굴표정 인식 과제, 사이버 볼 게임, 사회적 가상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정서 인식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일반적으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더 직접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기분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

정서 인식 과정을 알아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예. 외로운 상황, 갈등 상황)을 반영한 실험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정서 인식 과정을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긍정 기분과 부정 기분을 유도함으로써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이 감정의 유인가에 따라 어떤 다른 감정을 인식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자들이 부정적으로 편향된 정서 인식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보고되었지만(Domes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넘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후에도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 단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이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 어떤 상이한 정서 인식 과정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어떤 감정을 상쇄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먼저,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정서 명료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에 정서주의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경계선 성격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할 시 정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 보다는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중요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은 긍정 정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흡이나 마음챙김을 통해 내담자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경험하고 감정단어목록을 사용

하여 감정을 명명화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증법적 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al Therapy; DBT)의 정서조절 기술과 고통 감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 정서조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차적인 감정 이면에 있는 일차적인 감정 알아차리기, 긍정적인 상황에 초점 맞추기, 즐거운 상황 상상하기,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반대의 감정을 유발하는 행동 취하기(예. 화가 날 때 상대방을 이해 하도록 노력하기), STRONG을 통해 정서적 취약성 낮추기 등이 있다. Strong은 S=적당한 수면 취하기, T=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 먹기, R=술이나 마약 하지 않기, O=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일 하기, N=균형 잡힌 식사하기, G=하루에 최소 20분 운동하기를 의미한다. 고통 감내 기술은 주의 분산, 신체 이완, 더 안 좋은 상황과 비교, 자기격려, 의미 탐색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회피를 통한 정서조절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경계선 성격을 가진 내담자와 상담할 때는 상담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자는 내담자와 rapport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내담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어떤 정서를 인식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좀 더 객관적인 정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임상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임상 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현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자기보고식 설문이나 감정단어목록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 인식 과정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Dinsdale & Crespi, 2013),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법, 인터뷰, 일기법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서 인식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실험 협조자와의 상호작용 내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만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들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그리고 자기관여 여부에 따라 정서 편향 정도가 다르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박선매, 2017)로 미루어볼 때, 차 후 연구에서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정서 명명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감정 단어 목록은 실제로 참가자들이 인식하지 않았던 정서에 대해서도 보고하게끔 하였을 수 있다. 참가자들이 인식한 정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의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강한 일반 대학생들이 긍정 기분 유도 조건과 부정 기분 유도 조건에서 어떤 정서를 인식하는지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없는 일반 대학생들과의 비

교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의 수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김수안, 민경환 (2006). 자신의 감정에 압도된 사람들의 성격, 정서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0(3), 45-66.
- 김수진, 박기환 (2017). 사회불안의 해석편향에 미치는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6(4), 617-629.
- 김은하 (2012). 상담학 연구에서 실험 패러다임의 적용. *상담학연구*, 13(5), 2119-2133.
- 김지선, 현명호 (2012). 사회적 상황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정서지각. *청소년학연구*, 19(2), 255-274.
- 박선편 (2017). 경계선 성격 성향자의 얼굴표정 정서인식 편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신성만, 송용수, 김정진, 오준성 (2018). 청소년의 충동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지연 할인 과제와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345-363.
- 양은주, 류인균 (2000). 경계선 성격장애의 생물유전적 기질, 현상적 성격 및 방어기제적 특성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 *정신병리학*, 9(1), 3-15.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균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미정, 안창일 (1997). 기분상태와 상황요인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01-118.
- 이문희, 이수림 (2020). 안정 애착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98-608.
- 이서진, 김은하 (2016). 정서인식명확성, 정서표현, 심리적 수용에 따른 균집 비교: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불안 및 우울. *상담학연구*, 17(3), 65-87.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 이지영 (2016).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조절곤란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217-244.
- 이지영, 김은하 (2018). 긍정 정서강도와 부정 정서강도의 차이: 성격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의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3), 411-439.
-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지혜, 박승호 (2017). 유도된 기분이 방어적 비관주의자와 전략적 낙관주의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165-181.
- 임현주 (2010). 정서강도,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회피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석, 이종환, 임종민, 곽호완, 장문선, 배대석 (2017). 정서조절 전략과 인지적 반응성의 관계 - Implicit Relational Assessment Procedure (IRAP)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6(4), 574-588.
- 최문정, 이수림 (2019). 정서인식 명확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용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9(1), 608-622.
- 최부열, 정경미 (2011). 충동성 측정도구로서 지연 디스카운팅 과제 (Delay Discounting Task)의 상대적 유용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845-869.
- 하현주, 권석만 (2010). 마음챙김 명상의 심리치료적 적용을 위한 제안. *불교학보*, 56, 241-271.
- 허연주, 이민규 (2015).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3), 747-767.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259-271.
-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 Bagge, C., Nickell, A., Stepp, S., Durrett, C., Jackson, K., & Trull, T. J.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predict negative outcomes 2 years la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2), 279.
- Barnes-Holmes, D., Barnes-Holmes, Y., Power, P., Hayden, E., Milne, R., & Stewart, I. (2006). Do you really know what you believe? Developing the Implicit Relational Assessment Procedure (IRAP) as a direct measure of implicit beliefs. *The Irish Psychologist*, 32, 169-177.
- Bailey, J. M., & Shriver, A. (1999). Does childhood sexual abuse caus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5(1), 45-57.
- Bland, A. R., Williams, C. A., Scharer, K., & Manning, S. (2004).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5(7), 655-672.
- Bornovalova, M. A., Gratz, K. L., Delany-Brumsey, A., Paulson, A., & Lejuez, C. W. (2006). Temperamental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mong inter-city substance users in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0(3), 218-231.
- Bornovalova, M. A., Matusiewicz, A., & Rojas, E. (2011). Distress tolera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intensity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levels. *Comprehensive psychiatry*, 52(6), 744-753.
- Briere, J., & Elliott, D. M. (2003).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sequelae of self-reported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 neglect*, 27(10),

- 1205-1222.
- Brumariu, L. E., & Kerns, K. A. (2013). Pathways to anxiety: Contributions of attachment history, temperament, peer competence, and ability to manage intense emotion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4*(4), 504-515.
- Brüne, M., Kolb, M., Ebert, A., Roser, P., & Edel, M. A. (2015). Nonverbal communication of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uring clinical interviews: a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using intranasal oxytocin.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3*(2), 107-111.
- Burns, E. E., Jackson, J. L., & Harding, H. G. (2010). Child maltreatment,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The impact of emotional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8), 801-819.
- Cooper, M. L., Agocha, V. B., & Sheldon, M. S. (2000). A motivational perspective on risky behaviors: The role of personality and affect regulatory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68*(6), 1059-1088.
- Dijke, A Wout, M., Ford, J. D., & Aleman, A. (2016). Deficits in degraded facial affect labeling in schizophrenia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lus One, 14*(11): e0154145.
- Dinsdale, N., & Crespi, B. J. (2013). The borderline empathy paradox: evidence and conceptual models for empathic enhancement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7*(2), 172-195.
- Domes, G. C. D., Weidler, F., Berger, C., Fast, K., & Herpertz, S. C. (2008). Recognition of facial affect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2), 135-147.
- Dyck, M., Habel, U., Slodczyk, J., Schlummer, J., Backes, V., Schneider, F., & Reske, M. (2009). Negative bias in fast emotion discrimin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39*(5), 855-864.
- Ellison, W. D., Rosenstein, L., Morgan, T. A., Zimmerman, M. (2018). Community and clinical epidem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1*(4), 561-573.
- Ferreira, G., Sanches, R. F., Crippa, J. A. D. S., Mello, M. F. D., & Osório, F. L. (2018).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bias in the recognition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a pathway to understand the psychopathology. *Archives of Clinical Psychiatry (São Paulo), 45*, 7-11.
- Fonseca-Pedrero, E., Paino, M., Lemos-Giraldez, S., Sierra-Baigrie, S., Gonzalez, M. P. G., Bobes, J., & Muniz, J. (2011).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4), 542-556.
- Gohm, C. L., & Clore, G. L. (2003). Individual difference in emotional experience: Mapping available scales to proces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6), 679-697.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06).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 dysregula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4), 850-855.



- Gratz, K. L., Rosenthal, M. Z., Tull, M. T., Lejuez, C. W., & Gunderson, J. G. (2010).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emotional reactivity and delayed emotional recovery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role of shame. *Comprehensive Psychiatry*, 51(3), 275-285.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 Henry, C., Mitropoulou, V., New, A. S., Koenigsberg, H. W., Silverman, J., & Siever, L. J. (2001).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borderline personality and bipolar II disorder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5(6), 307-312.
- Hooley, J. M. (2007). *Expressed emotion and relapse of psychopathology*. *Annu. Rev. Clin. Psychol.*, 3, 329-352.
- Hughes, S., & Barnes-Holmes, D. (2011). On the formation and persistence of implicit attitudes: New evidence from the Implicit Relational Assessment Procedure (IRAP). *The Psychological Record*, 61(3), 391-410.
- Jacob, G. A., Guenzler, C., Zimmermann, S., Scheel, C. N., Rusch, N., Leonhart, R., Nerb, J. & Lieb, K. (2008). Time course of anger and other emotions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39, 391-402.
- Keng, S. L., & Soh, C. Y. (2018).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invalid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s: self-construal and conformity as moderating factor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5(1), 1-9.
- Kerns, J. G., & Berenbaum, H. (2010). Affective processing in overwhelmed individuals: Strategic and task considerations. *Cognition & Emotion*, 24(4), 638-660.
- Koenigsberg, H. W., Harvey, P. D., Mitropoulou, V., New, A. S., Goodman, M., Silverman, J., & Siever, L. J. (2001). Are the interpersonal and identity disturbances in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riteria linked to the traits of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4), 358-370.
- Kuo, J. R., Khoury, J. E., Metcalfe, R., Fitzpatrick, S., & Goodwill,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role of difficulties with emotion 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39, 147-155.
- Larsen, R. J., & Diener, E. (1987).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A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1), 1-39.
- Leible, T. L., & Snell Jr, W. E.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multiple asp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393-404.
- Levine, D., Marziali, E., & Hood, J. (1997).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4), 240-246.
- Lieb, K., Zanarini, M. C., Schmahl, C., Linehan, M. M., & Bohus, M. (2004).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64, 453-461.
- Linehan, M. M.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Y:

- The Guilford Press.
- Lynch, T. R., Rosenthal, M. Z., Kosson, D., Cheavens, J. S., Lejuez, C. W., & Blair, R. J. (2006). Heightened sensitivity to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Emotion, 6*, 647-655.
- Minzenberg, M. J., Poole, J. H., & Vinogradov, S. (2006). Social-emotion recognit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Comprehensive psychiatry, 47*(6), 468-474.
- Mitchell, A. E., Dickens, G. L., & Picchioni, M. M. (2014). Facial emotion processing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europsychology review, 24*(2), 166-184.
- Moor, M., Distel, M., Trull, T. J., & Boomsma, D. (2009). Assess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 Population Samples: Is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Borderline Features Scale Measurement Invariant Across Sex and Age?. *Psychological assessment, 21*, 125-130.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oi, J., Francova, A., Szekely, M., & Michael, J. (2018). The sense of commitment in individual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a non-clinical population, *Frontiers in Psychiatry, 9*, 519.
- Robin, M., Belbèze, J., Pham-Scottet, A., Shadili, G., Peres, V., Silva, J., ... & Speranza, M. (2021). Paradoxes in Borderline Emotional Dysregulation in Adolescenc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ful Life Events, and Attachment. *Frontiers in Psychiatry, 1802*.
- Rosenthal, M. Z., Cheavens, J. S., Lejuez, C. W., & Lynch, T. R. (2005). Thought sup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9), 1173-1185.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ulze, L., Domes, G., Köppen, D., & Herpertz, S. C. (2013). Enhanced detec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pathology, 46*(4), 217-224.
- Skodol, A. E., Gunderson, J. G., Pfohl, B., Widiger, T. A., Livesley, W. J., & Siever, L. J. (2002). The borderline diagnosis I: Psychopathology, comorbidity, and personality structure. *Biological Psychiatry, 51*, 936-950.
-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9), 934-949.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Trull, T. J., Ueda, J. D., Conforti, K., & Doan, B. (1997).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Two year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2), 307-314.
- van Dijke, A., Ford, J. D., van Son, M., Frank, L., & van der Hart, O. (2013). Association of childhood-trauma-by-primary caregiver and affect dysregulatio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 adulthood.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3), 217-224.
- van Dijke, A., van 't Wout M., Ford, J. D., & Aleman, A. (2016). Deficits in Degraded Facial Affect Labeling in Schizophrenia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LoS ONE*, 11(6): e0154145.
- Watson, S., Chilton, R., Fairchild, H., & Whewell, P. (2006).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dissociation among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0(5), 478-481.
- Westermann, R., Spies, K., Stahl, G., & Hesse, F. W. (1996). Relativ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mood induction procedures: a meta-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557-580.
- Wingenfeld, K., Rullkoetter, N., Mensebach, C., Beblo, T., Mertens, M., Kreisel, S., Toepper, M., Driessen, M., & Woermann, F. G. (2009). Neural correlates of the individual emotional Stroop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oneuroendocrinology*, 34(4), 571-586.
- Winter, D. (2016). Attention to emotional stimuli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a review of the influence of dissociation, self-reference, an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emotion dysregulation*, 3(1), 1-12.
- Williams, K. D., Govan, C. L., Croker, V., Tynan, D., Cruickshank, M., & Lam, A. (2002). Investigations into differences between social-and cyberostracism.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6(1), 65-77.
- Yen, S., Zlotnick, C., & Costello, E. (2002). Affect regulation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10), 693-696.

원 고 접 수 일 : 2022. 07.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9. 13

게재결정일 : 2022. 09. 21

## Emotional Awareness of College Stud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ducing Positive and Negative Mood in a Simulation Experiment

Euiseok Jeong<sup>1)</sup>

Eunha Kim<sup>2)</sup>

<sup>1)</sup>Gyeongg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Counselor

<sup>2)</sup>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Professor

Given that people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PD) traits frequently experience emotional dys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much attention they pay to and recognize their positive and negative moods. Study 1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PD traits and emotional awareness clarity among non-clinical college students and found that the higher the BPD traits, the lower the emotional awareness clarity. In terms of subscales, BPD trait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emotional attention but we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al clarity. Study 2 examined a subset of Study 1 participants with high BPD traits. Those assigned to the positive mood induction condition reported more positive mood but no change in negative mood, while those assigned to the negative mood induction condition reported more negative mood and less positive mood.

*Key words* : *borderline personality, emotional awareness, mood inducing procedure, simulation experiment*